



“지속가능 도시로 대도약” 파주시, 인구 50만명 돌파...전국 19번째·경기도 13번째

경기 파주시 인구가 드디어 5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2년 뒤인 2024년 50만 대도시 지위를 획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시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9번째,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는 13번째로 인구 50만 명을 넘어서는 도시가 됐다. 2013년 8월에 인구 40만 명을 넘어선 이후 8년여만이다. 시는 1996년 3월 1일 파주군에서 인구 17만 명의 동농복합시로 승격된 후 26년여간 지속해서 발전, 인구 50만 명을 넘어서게 됐다. 2000년대 초부터 산업단지 및 산업기반시설 확충, 운정신도시 등 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광역교통망·주거 편의 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이 지속해서 확충된 결과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구 50만 명이 유지되면 2024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법상 대도시 특례가 공식 인정돼 지속가능한 파주 발전을 위한 자치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경기도가 행사해 오던 도시관리계획 개발 결정·변경,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 변경, 환경보전 등 25개 법률 약 120개의 권한 및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올해를 인구 50만 대도시 시대에 본격 진입하는 원년으로 삼고, 자치권 확대에 따른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시민과 함께 성장 발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비전전략 수립 분과 등 4개 분과 44개 전략으로 이뤄진 '50만 대도시 진입 대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50만 대도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정책연구시스템 구축을 통해 향후 맞춤형 정책 개발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50만 대도시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자족도시라는 가치를 높이고 고자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파주메디칼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아주대 병원과 국립암센터 산학협력단 혁신의료연구단지를 유치해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기대하고 있다. 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 조성·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유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안정적 이전 추진, 폴리텍대 경기 북부캠퍼스 조성 등은 파주의 자족 기능 향상을 위한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노선 준공, 지하철 3호선 및 대곡소사선 파주 연장 등 빠르고 편리한 최적의 철도망 확충을 추진 중이며, 마을버스 준공영제 확대 및 안정화, 천원택시 질적 향상, 교통취약지역 수요 응답 버스인 부르미 확대도 준비 중이다. ●

50만 대도시로의 대전환!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가치 향상

더 공정하고 더 도약하는 파주를 위해
50만 대도시 시민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